



일본 돗토리현 삼색(三色) 낙원에서의 오감 만족 여행

거대한 산은 초록빛(綠)으로 싱그러웠고, 황금빛(黃) 모래언덕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으며, 기암으로 장식된 바다는 투명한 푸른빛(靑)으로 출렁였다. 마음에 휴식을 가져다주는 계곡과 산사, 몸을 무장해제시키는 온천, 미각을 행복하게 하는 다채로운 먹거리,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공기 등 돗토리(鳥取)현은 가히 엄지를 치켜세울 만했다.

글 임동근 · 사진 전수영 기자



청정 자연 품은 산과 계곡

일본 돗토리현에 간다고 하자 “많이 들어봤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그곳이 어디쯤 있고, 어떤 곳인지 말하지 못했다. 참 나무 열매인 도토리과 발음이 비슷한 데서 비롯한 착각인 듯싶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本州) 남쪽에 자리한 돗토리현은 북쪽으로 동해를 바라보고 있다. 왼쪽에 시마네현(島根), 남쪽에 오카야마(岡山)현, 오른쪽에 효고(兵庫)현을 두고 있다. 위도는 울산·부산과 비슷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자면 오사카(大阪)보다 가깝다. 돗토리시에서 오사카시까지 는 약 200km로 차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MTB로 답사하는 다이센 옛길

첫 일정은 일본의 세 번째 국립공원이자 주고쿠(中國) 지역 최고봉인 다이센(大山, 해발 1,729m)에서의 산악자전거(MTB) 라이딩. 북쪽 해안부터 산 중턱에 있는 다이센지(大山寺)라는 사찰로 이어지는 약 22km의 옛길 중 일부 구간을 MTB로 달리는 체험이다.

어드벤처 & 에코투어 센터인 모리노쿠니(森の國)에서 헬멧과 장갑을 챙긴 후 트럭에 MTB를 싣고 출발지인 다이센 스키장(해발 850m) 인근으로 이동해 MTB를 타기 시작했다. 맞바람을 맞으며 구불거리는 산간 도로를 내리달는 기분이 무척 상쾌하다. 차도 거의 없어 불안감도 없다. 눈앞엔 다이센 고원의 연둣빛 풍경이 펼쳐지고, 도로변으론 정갈한 일본식 주택들이 지나다.

다이센국립공원 센터와 제4주차장을 지나 오른쪽 숲길로 들어섰다. 바로





옛길이다. 길에는 흙과 돌과 나뭇가지가 깔려 속도를 내기 어렵지만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진한 신록(新綠)에 마음마저 시원해진다. 마침 오전에 내린 비로 촉촉이 젖은 숲속에선 풀과 흙과 나무가 버무려진 초록빛 향기가 가득하다. 내리막 숲길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진다. 주먹만 한 자갈이나 머리통만 한 돌을 이리저리 피하고 실개천을 가로지르는 조그만 다리를 아슬아슬 건너고 때론 쓰러진 나무에 길이 막혀 MTB를 들고 가야 한다. 울퉁불퉁한 길이 계속 이어지며 엉덩이가 아파질 때쯤 드디어 도로가 나타났다.

도로는 드넓은 논이 펼쳐진 들판을 지나고 아기자기한 집들이 웅기종기 모인 마을을 통과한다. 지나면서 보니 모심기가 끝난 논은 전봇대와 집, 나무와 새, 산과 구름과 하늘을 수면에 하나 가득 담아내고 있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들판을 달리니 마치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1 다이센 옛길을 지나 논이 펼쳐진 들판을 달리고 있다. 2 쓰러진 나무에 길이 막혀 MTB를 들어 옮기고 있다. 3 주변 풍경을 담아내고 있는 논이 수면



1가기가케 고개 전망대에서 바라본
다이센의 남쪽 모습 2 다이센 목장 우유마을에서
본 다이센 3 초록 이끼가 가득한
기타니자와 계곡 4 다이센 목장 우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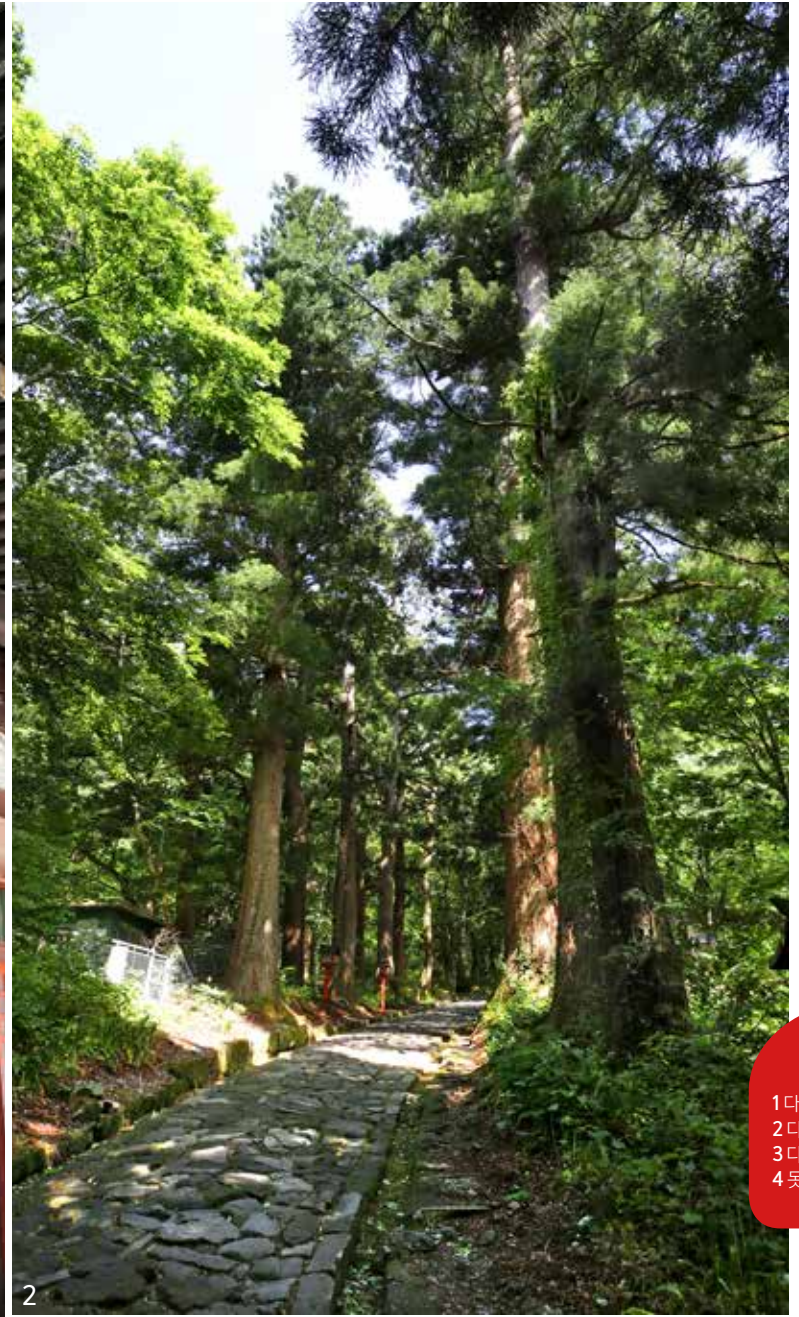
다이센의 변화무쌍한 표정

다이센은 방향에 따라 표정이 달라진다. 서쪽에서 보면 후지산처럼 뾰족하지만 남쪽에선 엷드린 소의 몸통 같다. 다이센의 남쪽 얼굴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곳은 해발 90m의 가기가케(鍵掛) 고개 전망대. 다이센 국립공원 센터에서 남쪽 다이센파크웨이를 따라 오르막 도로를 달리면 닿는다. 그곳에 서면 서일본 최대의 너도밤나무 숲 뒤편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하얀 봉우리가 칼날처럼 솟아 있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불붙은 듯 화사한 단풍과 하얀 봉우리가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이라고 한다.

전망대에 온 김에 인근에 있는 기타니자와(木谷沢) 계곡도 들르는 게 좋다. 일본의 대표 주류와 음료 제조사인 산토리가 생산하는 다이센 생수 광고의 촬영지가 바로 이곳이다. 상류에는 취수장도 있다.

도로에서 산책길로 들어서자 돌연 울창한 숲이 나타나고 사방에서 물소리와 새소리가 들려온다. 아마추어 사진가도 숲속 여기저기서 보인다. 옛 송어양식장의 수조는 주변의 풍경을 고요한 수면에 한가득 담아내고 있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자 물이 청아한 소리를 내며 계곡을 따라 흐른다. 계곡은 푸른 잎으로 둘러싸였고, 바위와 나무 밑동과 등걸은 연두색 이끼에 점령당했다.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청량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심신이 치유되고 숲의 정령이라도 나타날 것 같다. 계곡을 따라 난 왕복 1시간 정도의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도 좋겠다.

다이센 목장 우유마을에서는 다이센의 서북쪽 얼굴을 볼 수 있다. 목장 뒤편에는 가기가케 고개 전망대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다이센이 솟아 있다. 이게 정말 같은 산인가 싶다. 병풍처럼 웅장하고 등줄기가 날카로운 바위는 전혀 볼 수 없고 초록빛 삼각형의 봉우리만 보인다. dots리현 주민들은 목장의 넓은 풀밭에 텐트를 치거나 돛자리를 깔고 앉아 여유로운 한때를 보낸다. 이곳에서는 요나고(米子)시와 동해가 발아래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묵은 때 씻어주는 산사와 화사한 꽃공원

다이센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절은 일본 고대 말기인 헤이안(平安) 시대(794~1185)에 전성기를 이뤘다. 당시 암자가 100개가 넘었고, 승병이 3천여 명이나 됐다고 한다. 메이지(明治) 시대(1867~1912)에 크게 쇠퇴했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아든다. 사찰 입구에는 소의 영혼을 위한 비(牛靈碑)가 서 있고, 본당 인근에는 소 동상이 놓여 있다. 이는 돗토리현이 예전 일본 3대 우 시장이었던 것에서 비롯한다. 절에서는 소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다. 지금도 돗토리현은 일본 최고 육질의 소고기 생산지 중 하나로 유명하다.

본당 앞 가부좌한 붉은색 승려 목상은 머리카 다리, 어깨가 반들반들하다. 방문객들이 자신의 아픈 곳과 같은 목상의 부위를 만지면 낫는다 해서 문지른 탓이다. 마침 살짝 두통이 있던 참이라 목상의 머리를 문질러봤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았다. 한쪽에는 소원을 빌며 치면 들어준다는 청동 종이 매달려 있다.

일본의 절이나 신사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여행지가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주변 산책길은 꼭 추천하고 싶다. 다이센지에서 오가미야마신사까지 이어지는 11km의 비탈길이 무척 아름답다. 수령이 1천년은 넘었을 듯한 아름드리 삼나무가 하늘을 향해 쪽쪽 뻗은 비탈길에서는 청아한 새소리를 들으며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신사 뒤편에는 계곡을 지나 산정까지 이어지는 길과 아름다운 야생화로 유명한 고산 초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 다이센지 입구에는 차나 메밀국수를 먹으며 쉴 수 있는 찻집도 있다.

올해 개장 20주년을 맞은 돗토리 하나카이로(花回廊)도 필수 방문지다. 이곳은 일본 최대 규모의 꽃공원으로 면적이 50만㎡에 달한다. '꽃의 회랑'이란 이름처럼 이곳에는 둘레 1km의 원형 회랑이 있다. 회랑에는 지붕이 있어 비가 오면 우산이 되고, 태양이 따가울 때는 차양이 된다. 회랑을 한 바퀴 돌면 최고 지상 30m 위에서 꽃밭과 폭포, 다이센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공원에는 열대와 아열대 식물이 있는 플라워돔, 야외무대와 분수가 있는 유리피연 가든, 봄이면 툭툭이 만개하는 꽃의 골짜기, 사계절 백합을 볼 수 있는 백합관 등이 들어서 있다. 화사한 꽃밭 뒤로 다이센의 남서쪽 얼굴도 볼 수 있다. 삼각형 봉우리의 산 정은 회색, 산 사면은 초록색으로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 1 다이센지를 찾은 여행객
- 2 다이센지와 오가미야마신사 사이의 숲길
- 3 다이센지 앞에 있는 소 동상
- 4 돗토리 하나카이로의 플라워돔





1 다이센 캠핑장에서의 바비큐
2 침대가 놓인 글램핑 텐트
3 바비큐 세트 메뉴 4 캠핑장 화장실



별이 쏟아지는 다이센 캠핑장

다이센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캠핑이다. 해발 400m에 있는 캠핑장 'FBI 다이센'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동화 같은 일이 펼쳐진다.

오후 5시 30분경 캠핑장에 도착했다. 완만한 경사의 캠핑장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띄엄띄엄 대형 텐트가 설치돼 있다. 화로가 있는 6인용 인디언 천막인 티피를 비롯해 침대와 소파가 있는 글램핑 텐트,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 좋은 베란다가 딸린 텐트 등 다양한 콘셉트의 텐트가 있다. 샤워장과 화장실은 별도 공간에 있다.

우리 일행에게는 더블 침대 2개가 있는 4인용 글램핑 텐트가 배정돼 있었다. 남자 셋은 글램핑 텐트 하나를 함께, 여자 한 명은 텐트를 설치해 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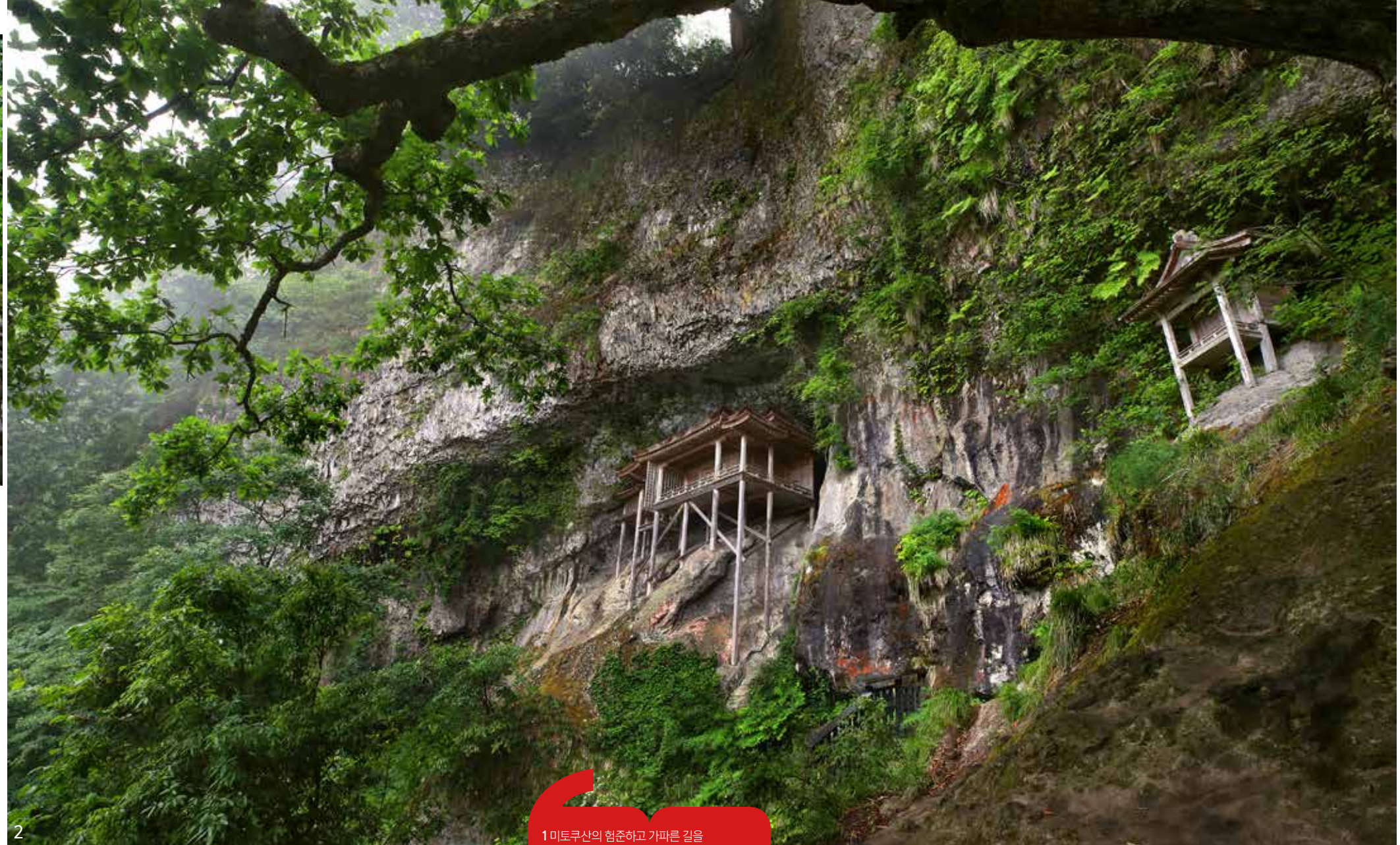
사용하기로 했다. 텐트를 설치하고 미리 주문한 바비큐 재료를 옮겨와 식탁에 올려놓자 날이 저물어갔다.

바비큐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불피우기. 하지만 캠핑 초보 4명에게 불붙이기는 무척 어려운 도전이었다. 수차례 착화제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보지만 좀체 붙지 않는다. 허기에 주둥이는 자꾸만 앞으로 돌출된다. 숯을 바꾸고, 바람길을 만들고, 손목이 아프도록 부채질을 하며 드디어 40분 만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하나? 마블링이 잘 된 돛토리 와규를 비롯해 돼지갈비, 닭고기꼬치, 새우와 파프리카, 버섯, 베이컨 토마토 꼬치 등이 차례로 석쇠에 오르고 약간 매캐한 연기 속에 좋은 냄새를 풍기며 익어간다. 군침이 도는 입속에 붙은 기 살아있는 와규를 한 점 집어넣었다. 우물거릴 새도 없이 와규는 사라져버렸다. 숯불 향 가득한 고기와 야채, 그리고 맥주 한 잔. 캠핑의 즐거움을 조금 알 것 같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캠핑장 아래로는 불을 밝힌 요나고의 도심과 해변이 내려다보인다.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에선 우리나라 웬만한 곳에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꿈속에서 휘황한 우주를 떠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1



2

1 미토쿠산의 험준하고 가파른 길을 오르고 있다. 2 일본 국보로 지정된 미토쿠산의 나게이레도 법당. 3 미사사온천 오하시 여관의 노천탕

전설 깃든 미토쿠산과 미사사 온천마을

다이센에서 동쪽으로 구라요시(倉吉)시 인근에는 미토쿠산(三徳山)이라 부르는 일본인들에게 유명한 산이 있다. 이 산자락에 있는 산부쓰지(三佛寺)라는 절의 법당 중 하나인 나게이레도(投入堂)가 특히 명성이 높다.

미토쿠산 도착 직전까지 비가 제법 내렸다. 일정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내심 미소를 짓기도 했다. 추적추적 비를 맞으며 위험스러워 보이는 가파른 비탈을 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산기슭에 도착하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안내소에서 입산료(대인 800엔, 초·중학생 400엔, 관람료 포함)를 내고 500년이 넘는 삼나무가 솟은 길을 300m쯤 오르면 짙은 녹음에 둘러싸인 산부쓰지가 나타난다. 절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불상, 괴수와 말의 동상 등이 이곳저곳에 놓여 있다.

산부쓰지를 지나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풀 내음과 흙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다리를 건너자 처음부터 길이 가파르다. 십일면관음당을 지나자 7~8세기 수행자로 이 절을 창시한 엔노교자(役の行者)의 석상이 장난스럽게 미소짓고 있다. 조금 더 가자 깎아지른 벼랑이 이어진다. 너도밤나무와 떡갈나무의 커다란 뿌리를 붙들고, 바위와 쇠밧줄을 붙잡고 오르는 험한 길이 계속된다. 중간중간 문수당, 지장당, 관음당 등 법당을 지나고, ‘말의 등’, ‘소의 등’이란 이름의 바위지대도 거친다. 마침내 40여 분만에 최종 목적지인 나게이레도 아래 도착했다. 거대한 절벽 가운데서 나무 기둥 몇 개가 위태롭게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엔노교자가 던진 연꽃잎이 날려간 곳 중 하나인 미토쿠산에 와서 기슭에 법당을 지은 후 절벽에 던져 넣은 것이 나게이레도다. ‘투입’이란 법당의 이름도 전설에서 유래했다. 나게이레도는 국보로 지정돼 있다.

산부쓰지 주지는 “일본에서는 대지, 물, 나무, 달, 태양 등 모든 자연에 신이 있다고 믿는데 특히 미토쿠산은 많은 신이 모이는 곳이어서 많은 수행자가 찾고 있다”며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후회할 때도 있는데 미토쿠산 산행을



3

오하시여관 제공

통해 오감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토쿠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는 미사사(三朝) 온천이 있다. 세계에서 라듐 함유량이 가장 많은 온천수가 솟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사사라는 이름은 ‘아침을 세 번 맞으면 병이 낫는다’는 뜻에서 나왔다. 이곳에선 온천욕을 하고 증기를 흡입하고 온천수를 음용할 것을 권한다. 증기는 천식에, 음용은 소화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토쿠산에서 발원한 물이 흐르는 미토쿠강을 따라 노천탕과 실내 탕을 갖춘 오하시(大橋),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야(木屋) 등 온천 여관이 들어서 있다. 노천욕을 즐기며 시원스럽게 흐르는 강을 바라보는 기분이 무척 좋다.

미사사 다리 인근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노천온천이 있고, 마을 곳곳과 다리 위에는 족욕탕도 있다. 마을 내 족욕탕 중 야쿠시노유(薬師の湯)는 드라마 ‘아테나 : 전쟁의 여신’ (2010)에서 정우성과 보아가 등장하는 장면을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해 뜰 무렵 솜사탕 같은 안개가 휘도는 주변의 산봉우리와 말없이 흐르는 미토쿠강을 감상하며 인적 드문 마을 길을 걸으며 맛보는 운치가 꽤 좋다.



투명한 바다와 사구가 있는 풍경

동쪽 교토부 교탄고(京丹後)시 핫초하마(八丁浜) 해안에서 효고현을 거쳐 돗토리사구까지 75km에 달하는 해안은 산인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해안선을 따라 기암이 즐비하고 화성암, 퇴적암을 볼 수 있으며 해식동, 사구와 사주 등 다양한 해안지형이 나타나는 곳이다. 물론 풍광도 수려하다. 돗토리시 동쪽 우라도메(浦富) 해안에 가면 이런 아름다운 바다를 몸으로, 눈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155번 해안 도로변에 있는 시라와라 주차장에서 스탠드업 패들링(SUP)과 스노클링 전문가인 나카타니 히데아키(中谷英明) 씨를 만났다. 공무원이던 나카타니 씨는 수년 전 SUP의 매력에 빠져 해양레포츠 업체를 차렸다고 한다. 그는 “100명 중 한 명 정도가 물에 빠지는 것을 봤다”며 “SUP는 무척 안전하고 재미있는 레포츠”라고 말했다.

스탠드업 패들링으로 체험하는 돗토리의 바다

준비운동을 한 후 SUP 보드를 들고 절벽에 놓인 계단을 따라 해안으로 내려갔다. 기암이 즐비한 바다는 바닥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수면에 보드를 띄우자 타는 요령과 노 젓기에 대한 설명과 시범이 이어진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

우선 보드의 중앙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균형을 잡고 좌우로 노를 저었다. 예상대로 별로 힘들이지 않고 보드는 수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자 보드에 무릎을 대고 몸을 일으켰다. 보드가 기우뚱거렸지만 역시 무리 없이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론 두 발로 딛고 일어섰다. 다리 전체에 힘이 잔뜩 들어가며 부들부들 떨린다.

하지만 눈이 높아진 만큼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은 확대됐고 더 아름다워졌다. 아래로는 투명한 푸른 바다가, 옆으로는 층층이 쌓인 퇴적암과 검정 현무암의 절벽, 조그만 바위섬이 지나쳐간다. 해식동굴을 통과하는 기분도 꽤 좋다. 가끔 유람선이 다가올 때 바다가 출렁이지만 바람 없는 바다는 잔잔하고 평화롭기만 하다.

보드를 서서 타는데 꽤 자신이 붙어 노를 힘차게 젓는 순간,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 100명 중의 한 명이 될 줄이야. 하지만 바닷물은 시원했고, 기분은 더할 나위 없었다. 물에 한 번 젖고 나자 더 자신 있게 노를 저을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 나카타니 씨가 액션캠으로 찍어 보내준 기념사진도 볼 수 있었다.

비경 펼쳐진 우라도메 해안

우라도메 해안을 몸으로 느꼈다면 이제 눈으로 감상할 차례. 시라와라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라도메 해안 섬 일주 유람선 선착장에 가면 배를 타고 해안을 돌아볼 수 있다. 95인승 유람선이 가모강 하구를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향하자 이내 기암절벽과 다양한 모양의 바위가 솟은 풍광이 펼쳐진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1



2

1 우라도메 해안 유람선 여행의 첫 번째 볼거리인 센간마쓰시마 2 바닥이 보이도록 투명한 우라도메 해안에서 SUP을 즐기고 있다. 3 우라도메 해안 섬 일주 유람선에서 주변 풍광을 감상하는 여행객들



3

첫 번째 볼거리는 센간마쓰시마(千貫松島). 꼭대기에 멋스러운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조그만 바위섬이다. 에도시대 돗토리번의 영주였던 이케다 쓰나키요가 뱃놀이를 하던 중 “이 바위에 붙은 소나무를 성 안 정원에 옮겨 심는 자에게는 은 천관(千貫)을 하사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 그만큼 운치가 있는 모습이다.

파도에 침식돼 형성된 해식동굴과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백사장, 크고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가모가이소 해안, 쌍봉낙타가 앉아 있는 듯한 라쿠다지마 등이 차례로 나타난다. SUP을 즐겼던 시라와라 해안도 볼 수 있다. 해안 가까이 접근해 잠시 투명한 물속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된다.



황금빛 모래언덕의 황홀함

돗토리시 북쪽 해안에는 10만 년의 시간이 만든 일본 최대의 모래언덕이 있다. 사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태안 신두리사구(3.4x0.5~1.3km)나 대청도 옥죽동사구(1x0.5km)를 떠올렸다면 틀렸다. 돗토리사구는 자그마치 길이가 16km, 너비가 2.4km에 달한다. 이곳 사구는 인근 센다이 강을 따라 흘러온 풍화된 암석이 바다를 만난 후 파도에 밀려와 쌓인 것이다. 주차장 옆에 설치된 계단을 따라 언덕으로 오르자 돌연 눈앞에 거대한 사막이 펼쳐진다. 완만

최대 높이 90m의 돗토리사구가 바다를 배경으로 웅장하게 펼쳐져 있다.



- 1 발자국이 가득한 돛토리사구
- 2 돛토리사구에서의 낙타 체험
- 3 '남아시아'를 주제로 한 모래조각이 전시된 모래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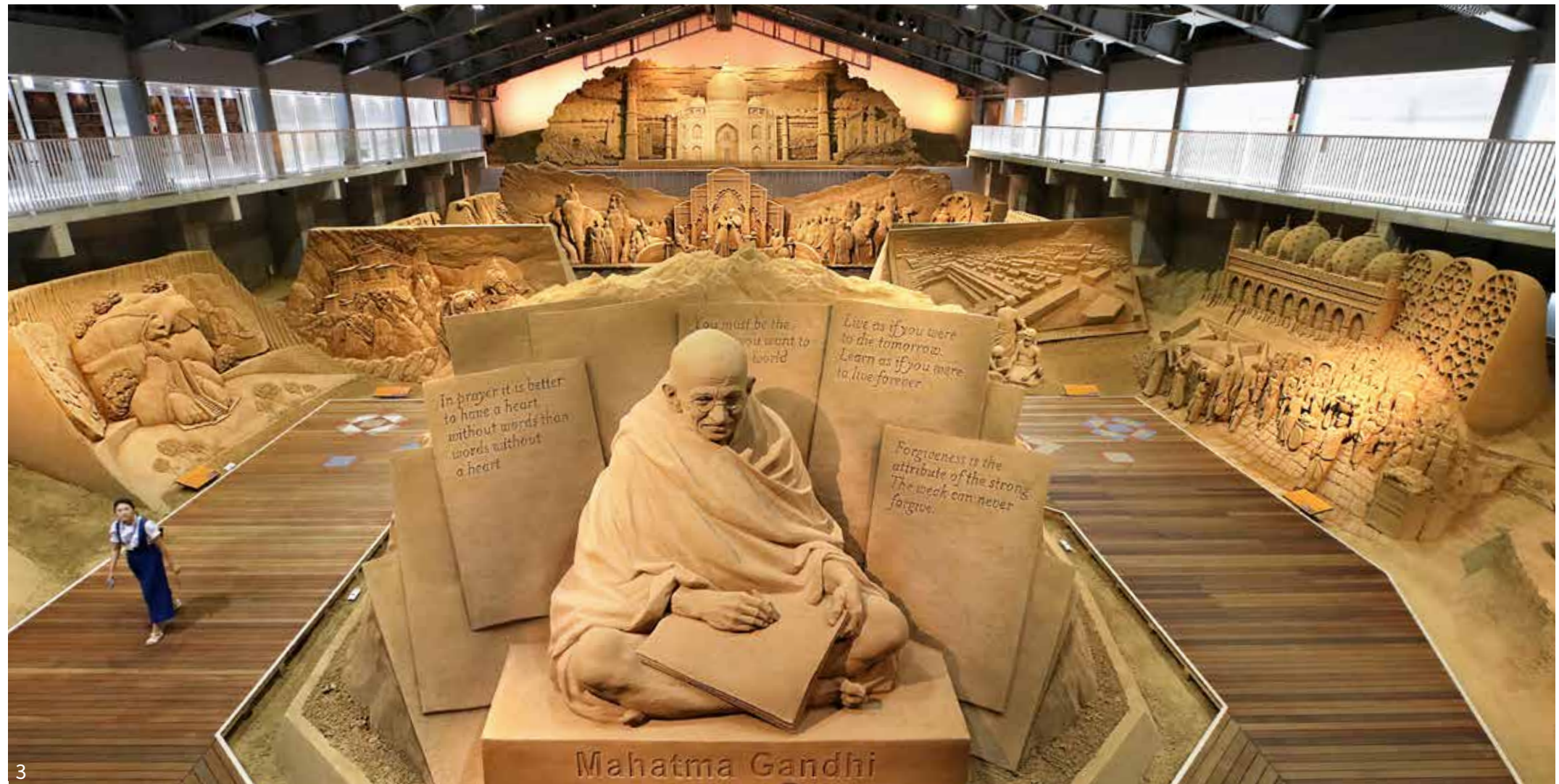
정교한 미술조각품 품은 미술관

돛토리사구 인근에는 모래미술관이 있다. 매년 주제를 달리해 모래조각을 전시하는데 올해의 주제는 '남아시아'(South Asia)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비폭력과 무저항 운동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가 방문객을 맞는다. 안경 낀 간디가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 무척 정교하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약한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등 간디가 남긴 명언도 새겨져 있다.

인도 바라나시에서 갠지스강에서 목욕재계하며 기도하는 인도인들, 방글라데시 다카의 스타모스크, 네팔 카트만두의 파탄 더르바르 광장, 타지마할, 부처와 힌두교의 신,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불, 스리랑카 시기리야의 바위와 벽화 등 실물과 똑같이 조각한 모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미술관 건물 바깥의 전망대에서는 돛토리사구도 조망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5일 까지 이어지고, 새로운 주제의 작품은 4월 중순부터 선보인다.



한 비탈 끝 멀리 모래언덕이 솟아 있고 그 뒤편으로 오후 햇살을 받은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인다. 예상을 뛰어넘는 풍광이다.

맨발로 모래를 딛고 비탈을 내려간다.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모래의 시원하고 보드라운 느낌이 꽤 좋다. 하지만 한여름에는 신발을 신고, 식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정도로 모래가 뜨겁다고 한다.

비탈 끝에 도착해 고개를 들자 모래언덕이 훨씬 더 거대해 보인다. 대부분은 완만한 비탈로 언덕을 오르내리지만 어떤 이들은 가파른 곳을 골라 힘겹게 오르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지 바닥에는 발자국이 빼곡하다. 바람이 모래언덕 표면에 그리는 물결 모양의 풍문(風紋)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탈을 터벅터벅 올라 마침내 '말의 등'이라 불리는 모래언덕 꼭대기에 서자 푸른 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지고, 모래언덕이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풍경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돌아보니 입구까지 거리가 까마득하다. 늦은 오후의 햇볕을 받은 사구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려올 때는 가파른 비탈면을 따라 내달렸다.

입구 왼쪽엔 사막을 대표하는 동물인 낙타가 모여 있다. 낙타를 타고 사구를 돌아보는 체험은 1인당 1천300엔, 2인은 2천500엔이다. 낙타 등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으면 500엔, 낙타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낙타만 사진에 담아도 100엔을 내야 한다. 가격이 싸지 않지만 인기가 높아 줄을 서야 한다.



미각 춤추는 돗토리현 ‘음식 여행’

1

“돗토리 와규는 육질이 일본 최고!”

요나고공항에 걸린 광고 속 문구다. 일본 와규(和牛) 중 흔히 고베규를 최고로 꼽지만 돗토리현은 돗토리 와규의 육질이 최고라고 자부한다.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와규의 품질을 5년마다 평가하는 와규능력공진회(和牛の能力共進會)에서 돗토리 와규는 2017년 육질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일본 최고 육질의 돗토리 와규

요나고시에 있는 다이센 흑우 전문점인 교쇼테이(強小亭)에서는 이를 기념해 돗토리 와규의 다양한 부위를 코스로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보였다. 특히 이 식당은 직접 출자해 운영하는 목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강한 소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 메뉴는 구이, 초밥, 사부사부, 야채 샐러드, 볶음밥과 소꼬리 탕 등으로 구성된다. 마블링이 고운 안창살·살치살·앞다리 살·볼깃살 구이는 혀를 녹일 듯 부드럽고, 지방이 많은 허벅지살에 성게 알을 올린 초밥



2

1 산채 요리 식당 미타키엔
2 요나고시 교쇼테이의 돗토리 와규
3 미술랭 1스타 식당 이자카야 준의 요리



3

은 감미롭다. 부위마다 찍어 먹는 소스도 달라 더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돗토리 와규를 실컷 즐길 수 있는 코스 메뉴의 가격은 1인당 6천800엔(7만4천원) 또는 8천500엔(9만3천원)이다. 이 식당은 미술랭가이드 더 플레이트(좋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에도 선정됐다.

다이센 자락에 있는 다이센 뷰 하이즈에서는 돗토리 소고기와 온천 계란을 이용한 스테이크 덮밥을 맛볼 수 있다. 2018년 다이센 개산(開山) 1천300년을 기념해 만든 요리로 부드러운 육질의 고기와 고소한 계란이 버무려진 맛이 좋다. 가격은 1천500엔(1만6천원).

산과 바다를 담은 요리들

돗토리시에 있는 이자카야 준(淳)은 지난해 미술랭 1스타를 받은 식당이다. 겨우 15명을 수용할 정도로 규모가 작고 허름해 보이지만 이곳이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돗토리현의 식재료를 제대로 이용해 요리를 내기 때문이다. 코스 요리를 보면 우선 콩, 나물, 두부, 고추, 가지 등을 이용한 요리가 나온다. 성게 알을 올린 도미와 살짝 익힌 붕장어, 콩치 초밥, 진흙새우를 넣은 가지 요리 등이 차례로 제공된 후 마지막에 밥·된장국·장아찌가 나오는 식이다. 가격은 4천~1만엔(4만4천~11만원)을 예상해야 한다. 혼자 방문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 먹는 손님이 많다.

돗토리시에서 남쪽으로 구불구불 계곡 길을 따라 오르면 약 50년 역사의



1 미타키엔의 풍성한 산채 요리
2 미사사온천 오하시여관의 정식 중 회 요리
3 이탈리아 레스토랑 알마레의 오징어 청어 알 파스타 4 고즈넉한 분위기의 미타키엔

산채 요리 식당인 미타키엔(みたき園)이 있다. 이곳은 직접 채취한 고사리, 죽순, 머위, 버섯에 매일 아침 만든 두부와 곤약을 음식 재료로 쓰고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고버섯 밥, 산초 된장을 발라 구운 송어, 다양한 제철 나물, 쑥·머위 잎·고구마 튀김, 곤약 꼬치 등을 즐길 수 있다. 메뉴는 계절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히노키(5천500엔), 산과 들의 맛을 살렸다는 스키(3천700엔), 산채를 중심으로 한 기본 코스인 타케(2천500엔)가 있다. 깊은 숲속에 있어 초록빛 나무와 이끼 낀 바위, 시원스럽게 쏟아지는 폭포가 고색창연한 건물과 어우러진 모습이 운치가 있다.

미사사온천 오하시여관의 정식(가이세키)은 훌륭하다. 수상 경력이 화려한 요리 명장이 제철 식재료를 음식을 만드는 것이 특징. 전채 요리는 고등어 초밥, 앙금, 계란 카스텔라, 콩과 오징어, 소라, 오리고기, 떡, 봉장어, 순채, 꿀뚜기 등 10가지에 달한다. 회로는 갯장어, 도미, 참치, 새우 등이 나오고 돗토리 와규도 맛볼 수 있다. 그야말로 돗토리현의 산과 바다의 진미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탈리안 파스타와 천연효모 빵

우라도메 해안에서 동쪽으로 히가시하마(東浜)역 인근에는 2017년 문을 연 이탈리아 레스토랑 알마레(Al Mare, '바다 위'란 뜻)가 있다. 해변에 자리한 정갈한 이탈리아풍의 붉은 지붕 건물에 앉아 있으면 이름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하다.

미슐랭가이드는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와 현지에서 생산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리조트처럼 세련되고 평온한 분위기를 높이 평가해 이 레스토랑에 더 플레이트를 부여했다.

파스타 코스를 선택하면 천연효모 빵과 훈제 버터, 부시리·양배추·예쁜 꽃에 루콜라 소스를 뿌린 전채 요리가 공통으로 나온다. 파스타는 오징어 청어 알 오일 파스타와 소고기 라구 파스타가 있다.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과 커피 또는 홍차가 있다.

식사는 점심에만 할 수 있으며 가격은 파스타가 1천980엔, 고급 지중해 코스가 3천980엔이다. 오후 2~5시에는 아름다운 해안을 감상하며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다.

다이센 자락에는 13년간 천연효모 빵을 만들고 있는 코사지이치(小さじいち)가 있다. 이곳에선 돗토리현에서 생산한 밀가루, 딸기·토마토·포도·사과 등 제철 재료를 이용한 천연효모, 몽골 천일 호수





1



3



2

1, 2, 3 다이센 자락에 있는
천연호모 빵집 코사지이치
4 비어 호프 간바리우스의 맥주들

소금을 이용해 담백하게 빵을 구워낸다. 봄에는 딸기와 썬, 여름에는 토마토와 매실, 가을에는 고구마와 해바라기 씨, 겨울에는 순무, 강낭콩, 팥 등 계절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맛이 부드럽고 순하며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다.

다이센 자락에 있는 비어 호프 간바리우스에서는 다이센 지하수를 사용하는 맥주 제조 공정을 엿보고 바이젠, 필스너, 페일 에일, 스타우트, 야고(Yagou) 등 다양한 지역 맥주를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야고는 사케의 주원료인 쌀을 10% 넣어 만든 것으로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다이센목장 우유마을에서는 부드럽고 고소한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고, 요나고시에 있는 과자의 성 고토부키조에서는 찹쌀떡, 전병, 술, 건어물, 어묵 등을 시식하고 살 수 있다. ▼



4

INFORMATION

여행정보

항공편

인천~요나고 직항편이 월요일을 제외한 주 6회 운항한다. 7월 6일~8월 21일에는 주 3회(화, 금, 일)로 운항편 수가 줄어든다. 인천이나 요나고 출발 시간은 요일마다 다르므로 확인하도록 한다. 7월 기준 화·일요일에는 인천에서 낮 12시 30분, 요나고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며, 금요일에는 인천에서 오전 9시 30분, 요나고에서 정오에 각각 출항한다. 운항 시간은 1시간 30분.

돗토리현 필수 3대 교통 패스

돗토리 마쓰에 패스는 JR 열차를 3일간 무제한 이용하는 패스로 가격은 성인 3천엔, 어린이 1천500엔이다. 돗토리역에서 요나고공항까지 성인 비지정석이 3천120엔, 지정석이 3천640엔이므로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구매할 수 없으며 국내 여행사, 소셜커머스(티몬, 쿠팡 등에서 살 수 있다. JR 산인 오카야마 패스는 오카야마현, 시마네현까지 여행할 수 있는 4일 패스다. 국내 또는 현지에서 살 수 있다. 일본 현지보다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싸다. 국내 판매 가격은 어른 4천500엔, 어린이 2천250엔이다. 국내에서 교환권을 구매한 후 현지 공항이나 주요 기차역에서 패스로 교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돗토리현의 주요 지역에서 버스를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노리호-다이데가타 3일 버스 패스가 있다. 가격은 1천800엔이며 요나고공항, 관광안내소, 버스터미널 등에서 살 수 있다.



배편

동해항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돗토리현 사카미미나토항을 잇는 페리가 주 1회 운항한다. 목요일 오후 5시 30분 동해에서 출발해 이튿날 아침 9시 사카미미나토에 도착하며, 복항편은 토요일 오후 7시 출발해 다음 날 아침 9시 돌아온다. 운임(편도/왕복)은 일반석 11만7천원/19만5천원, 이등석 14만1천원/23만5천원, 일등석 17만7천원/29만5천원. 예약은 전화(☎ 02-548-5557), 팩스(☎ 02-548-5503), 이메일(DBSFERRY@DBSFERRY.COM)로 해야 한다. 인터넷 예약은 안 된다.



렌터카 할인 캠페인

돗토리현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제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릴 경우 자동차 1대당 3천엔을 할인해 준다. 7인승 이상은 최대 8천엔 할인한다. 비행기 티켓, 숙박 예약 관련 서류나 영수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캠페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유료 택배 서비스

요나고공항에 도착해 호텔, 여관으로 짐을 보낼 수 있다. 가방 1개당 요금은 요나고시(가이케온천 포함)와 사카미미나토 800엔, 다이센 1천200엔이다. 요나고공항 1층 종합안내소에서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81-859-45-6123

